

은 빈혈과 비출혈이 적게 나타났다.

5. 학년별로 요양을 취한 시간을 보면 3학년에 2시간 이상 요양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6. 학년별 요양을 취한 회수는 2회 이상 반복 요양은 3학년이 5.6%로 가장 저조하였으며, 신체충실지수별로는 '가', '다', '마'에 속하는 학생이 2회이상 반복요양이 적었고 '나', '라'에 속하는 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제1권 제1호, 1983.

이 영 숙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에 관한 경험과 행위, 흡연하게 된 동기 및 흡연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2년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위치한 남자 고등학교중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이를 주·야간 2개교로 각각 나눈후, 전학년중 2학년을 선택하여 최종 표본단위로서 6개학급씩을 단순무작위로 추출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추출된 최종 표본단위인 각 학교에 속해있는 모든 학생을 조사 표본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자가 미리 준비한 설문지에 의거하여 각응답자가 직접 무기명으로 기입토록 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본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의 흡연실태

① 본 조사의 총 응답자 1,278명중 현재 흡연자가 30.2%, 과거 흡연자가 29.3%로 흡연경험자는 59.5%로 나타났다.

1973년의 고등학생들의 현재 흡연율 26.5%와 1976년의 32.2%와 비교해 보면 년도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소년기에 있는 조사대상학생들의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청소년 문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② 주·야간별 흡연경험율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주·야간 학교가 갖는 특성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③ 주·야간 학생의 연령별 흡연율을 보면, 17, 18, 19세에서 야간의 현재 흡연율이 주간보다 높게 나타나 같은 연령에서도 주간보다는 야간학생이 흡연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④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흡연경험율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보다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집단, 즉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난 집단에서 흡연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p < 0.01$).

2. 흡연에 대한 태도 및 흡연과 건강에 대한 지식정도

① 조사 대상자들의 미성연기 흡연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의 백분율(17.4%)이 현재 흡연율(30.2%)보다 낮다는 점에서 상당한 학생이 흡연에 대한 태도와 흡연행위간의 갈등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흡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교우간의 문제, 학교내의 흡연에 대한 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학생선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② 금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가운데 금연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수이상(51.8%)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은 금연에 대한 기존의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③ 흡연하는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 50.6%나 된다는 것은 절대금지였던 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수준에서 달라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④ 흡연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고 있는 학생은 98.7%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지식원으로는 「Radio, T. V.」가 23.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학교 선생님」(20.9%)으로 나타났다.

⑤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응답한 학생중 담배연기속의 인체유해성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71.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그중 「니코틴」 하나만을 아는 학생이 82.9%로서 가장 많았다($p < 0.01$).

⑥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도는 구체적인 질병명을 알고 있는 학생이 65.6%로 높게 나타났고, 질병명을 알고 있는 경우 85.5%가 호흡기계질환에 대해 알고 있었다.

3. 흡연자의 행위분석

①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 761명에 있어서 흡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로는 「호기심에서」가 가장 많았고(59.7), 다음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19.7%)였다.

② 처음 흡연한 시기로는 「중학교 3학년」이 (31.5%) 가장 많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흡연이 시작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있어서 특히 부모와 선생님의 지도와 관심이 요청된다.

③ 과거 흡연자의 흡연 중단 이유는 과반수 이상(53.1%)이 흡연에 대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36.3%가 「담배의 해로움을 알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④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7개피였으며, 「하루 16개피 이상」을 흡연하는

학생이 10.6%로 나타났다.

⑤ 현재 흡연자가운데 담배를 「끝까지 피우면서 깊게 흡입」하는 학생이 과반수이상(56.5%)으로 나타나 장래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금연지도가 시급히 요청된다.

⑥ 현재 흡연자중 교내에서 적발된 경험이 있는 학생이 27.5%였으나, 그후 계속 흡연한 학생이 61.3%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적발하여 지도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학생들을 위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다.

4. 흡연행위 관련 요인분석

① 부모 「모두 흡연하는 경우」가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학생들이 흡연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형이 흡연하는 경우」는 65.2%의 학생이 흡연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형의 흡연상태가 학생들의 흡연행위와 관련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학교집단내의 '학우흡연지수'가 증가할수록 흡연행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우집단내의 흡연이 개인의 흡연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학교 아동의 양호실 이용실태 조사연구

순천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9집, 1983.

장 인 옥

본 연구는 1982학년도 전학기동안(방학중 제외)을 통해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중에서 서울시내 2개교와 전남 순천시내 2개교의 국민학교를 선정하여 학동 총 17,677명을 대상으로 양호실을 이용한 15,658건을 분석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1. 현재 양호교사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약 4,42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대도시; 6,210명, 소도시; 2,629명).
2. 연간 아동 1인당 양호실 이용회수는 0.89회였다(대도시; 1.02회, 소도시; 0.58회).
3. 성별 이용율은 남아가 53.2%, 여아가 46.8%로서 남아가 양호실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다.
4. 학년별 이용율은 5학년이 가장 높아 22.5%였다.
5. 요일별 이용율은 화요일이 17.6%로 가장 높고 가장 낮은 이용율을 보인 것은 토